

치과의사협회-유디치과 보철물 발암물질 공방

치과 환자들은 불안하다

무료 스케일링 및 저가 임플란트 기술을 내세워 창업 중인 네트워크 치과병원(체인점 형태)인 ‘유디치과’와 기존 개인 치과의사(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신경전이 발암물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치과 치료중이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한 소비자들 사이에 진위 여부를 떠나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MBC TV ‘PD수첩’이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Be)이 포함된 포세린메탈로 치아보철물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곧바로 17일 성명에 이어, 18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무자격 치과기공

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발암물질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보건범죄”라며 유디치과를 비난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당사자인 유디치과는 성명과 다음 날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PD수첩이 방영한 ‘T-3’라는 포세린 합금재료는 환자의 건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다”고 주장했다.

포세린메탈의 유해성은 주로 과정에서 절삭·용해시 발생하는 가스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 뿐, 환자의 입에 시술될 때는 고체 상태로 사용되는 만큼 100% 안전하다는 게 유디치과측의 설명이다.

유디치과측은 또 “T-3 재료는 유

럽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현재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닐 뿐더러 치과 재료상들의 증언으로 미뤄 유디치과 외 국내 다른 치과들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발암물질 치아보철물이 사용됐다는 보도와 터무니 없는 음해라는 유디치과의 반발, 더욱이 보도에서 지적된 문제의 “T-3”재료가 상당수 일반 치과병의원에서도 사용돼왔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극도로 혼란해하고 있다.

광주 A치과 관계자는 “주말 사이 시술받은 임플란트가 발암물질이 있는 지 여부를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환자들의)문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

다”고 말했다.

유디치과는 브랜딩·경영방식 등을 공유하며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로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전국에 119개 지점을 운영중이다.

광주에는 서구 상무지구와 동구 학동 등 2곳, 광양시 1곳 등 광주·전남 지역에는 3곳이 영업중이지만 향후 2~3곳이 더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광주치과의사회는 지난 주 광주지역 유디치과들이 무료 스케일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환자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각 보건소에 고발, 보건소들이 현지 확인을 거쳐 이들 치과를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놓은 상태.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낮 도심서 여성 흥기 피살

광주 쌍촌동서... 용의자 내연남 자해 시도

대낮 광주 도심에서 40대 여성이 흥기에 찔려 숨졌다.

21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미용실 뒷길에서 김모(여·46)씨가 흥기에 수차례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복부와 목, 팔 등 10여 곳을 흥기에 찔린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씨와 내연 관계로 유력한 용의자인 윤모(50)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다.

윤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부산저축銀 아파트 사업

건설사 전 대표 약식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이 은행 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인(주)낙원주

택건설 전 대표 임모씨를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맡아 추진하면서 2006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초 임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

나원침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2고로 가스배관이 파열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제철소 2고로 폭발사고

“비정상적 가스압 상승 때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2고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양시 태인동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가스배관에서 폭발 사고로 불이나 지름 1.5m의 배기 가스관 15m가 파손됐고 용광로 제어 케이블을 50m가 소실되는 등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20분 만에 꺼졌다.

또 2고로공장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다리 골절상과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폭발 사고는 제철 공정 중에

발생하는 배기가스(CO)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이날 화재가 제1제선 공장 2고로 집진설비의 외부 배기 가스관 내 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건식 집진기 상단 배기 가스관이 탈락, 유출된 배기가스가 용광로 내부 열원에 의해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22일 현장 감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의경에 폭언 경찰관 둘 명예훼손 입건

광주경찰

현직 경찰관 2명이 같은 부서 소속 의무 경찰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1일 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위와 B경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부서 의경(21)에게 폭언 등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대해 이 의경은 이들 경찰관이 모욕적 언사와 함께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방청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한 데 이어 지

난달 8일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광주경찰청 감찰계는 파문이 일자 같은 달 이들 경찰관에 대한 직무 고발장을 수사부서에 접수했고 수사부서는 고소와 직무 고발 건을 병합해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이 중 한 경찰관은 인터넷 특정 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함께 인사 관련 서류를 고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제자 상습 성추행 전 여고교장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남 모 여고 전 교장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

던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제자들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추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바지에 묻은 A씨의 정액 등을 증거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5회에 걸친 위력 추행 부분은 인정되지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이지만 현행법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보성서 헬기 추락 기장 숨져

21일 오후 5시30분께 보성군 벌교읍 아산에서 병중해 방제 작업을 하던 민간헬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기장 장모(55)씨가 숨졌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 혼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자살 기도 탈옥수 신청원 퇴원



○…지난 18일 새벽 4시10분께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 자신의 독방에서 자살을 기도한 탈옥수 신청원(광주일보 8월 19일 6면)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20일 오후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안동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확인.

○…신씨를 치료한 안동병원은 21일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만큼 원기를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적절한 치료와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

○…신씨는 퇴원 후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옮겨져 교도소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이 설명.

/연합뉴스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Teps大개강(Teps+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피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